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사람이 나이 50세쯤 되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자님은 사람의 나이 50을 일러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라고 하셨다. 지천명이라? 공자님 당신께서 50 나이에 이르러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헤아려 알게 됐다는 말씀이다.

글쎄, 보통 인간들도 50쯤 나이 들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될까? 어렵없는 말씀이다. 그것은 오로지 공자님이시니까 그렇게 아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대놓고 자기 나이가 50이 됐으니 지천명의 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망발 가운데 망발이다.

나이 50과 관련지어 생각나는 사람은 또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다. 톨스토이는 50세 이전까지는 아주 자유롭게,

사람 나이 50쯤이면

흐릿하게 산 사람이었다. 작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누릴 것은 모두 누리며 산 사람이었다. 건강과 돈과 명예와 사랑이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모든 일을 가능한 일로 알고 살았던 톨스토이. 그는 50세에 이르러 자신의 인생을 스톱시켜 놓고 회심(回心)의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통렬히 반성한 뒤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 살았다 한다. 지금까지 산 인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인생이었다면, 그 이후의 인생은 남을 위한 인생이었다. 비로소 자기가 쓰고 싶은 작품을 쓰면서, 자기가 얻은 재화를 자기가 아닌 타인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사용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그렇게 32년. 참으로 장한 인생이다. 보통 사람은 꿈꾸기조차 어려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렇다면 인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인도의 힌두교에는 인생 4단계론이 있다. 25세까지를 학습기(學習期), 50세까지는 가주기(家住期), 50세를 넘어 75세까지를 임서기(林棲期), 75세가 넘으면 유흥기(遊獵期)라 한다. 참 특별한 인생 경영이다. 어쨌든 인생 살이에서 50살은 매우 중요한 나이이고 어떤 계기로 보인다. 50살이 돼 무언가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보살핌이 있고 신의 도움도 큰 사람, 행운의 사람이라 하겠다.

나의 생각은 그렇다. 사람이 현 살이 되어 비록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 지어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무언가는 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살아 보려는 노력, 자기 삶의 족적을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유소년기에 사람은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족이 생기고 이웃이 생긴 뒤로는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산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 늙은 사람이 된다. 필경 그가 늙은 사람이 돼 신의 축복을 받고 선택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허락되리라 본다. 누군가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 독립된 한 개체로 살아가는 기간이 열리리라 본다. 나는 일흔 살이 넘어 조금이라도 타인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알게 돼 매우 기쁘다.

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혼자만의 능력으로 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협력 안에서 늙은 사람이 된 것이다.

늙은 사람이 된 것도 커다란 은혜 입음이다. 그러므로 갚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나눔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내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식을 나누고, 내가 재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또 나누야 한다. 그것만이 늙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나누게 되면 늙은 사람의 한탄과 고독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늙어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젊은이 흥내를 내는 일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만족이 있어야 한다. 유지하려고 해야지 확장하려고 해서는 낭패를 본다. 진정 그렇게 사는 것이 늙은 사람의 삶이고 또 그것이 늙은 사람의 명예를 지켜 주는 좋은 길이다. 요즘 흔히 듣는, 인생은 60부터다 혹은 70부터다 하는 말은 지나친 억지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고 속이지 말 일이다. 나는 일흔 살이 넘어 조금이라도 타인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알게 돼 매우 기쁘다.

종교칼럼

나는 나무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20대, 사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을 즈음이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길을 걷다가 가로수를 보고 문득 생각했다.

‘차라리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돌아다닐 필요는 없을테니까’ 나무가 부러졌다. 죽든 살든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한곳에 매이는 것은 수명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부럽게 했다.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진 지 3주가 지났다. 과장하자면 숨만 쉬고 살고 있다. 평소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의 전폐되다시피 했다. 그나마 하는 일은 라이브 법문. 이 역시도 일요 법회 한

뒤로는 2주 가까이 없다. 하는 일 없이 숨만 쉬고 있는 것이 마치 한곳에서 가만히 고통받지만 하면 되는 나무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기 밥 잘 먹고, 사생활 보장되는 개인의 방이 있고, 거기서 편하게 잘 수 있으니 말이다. 젊은 시절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확실히 내가 어딘가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긴 하다. 지금 내가 어딘가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건, 어쨌든 지난 긴 세월 동안 어딘가에 뿌리를 내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를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 그리 과한 억지는 아니다.

젊은 시절엔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씨앗 같다고나 할까. 여기저기 뿌려진 씨앗. 어떤 씨앗은 강물 위에, 어떤 씨앗은 아스팔트 위에, 어떤 씨앗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가운데 떨어져서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만다. 겨우 자리를 잡더라도 그늘진 곳이거나, 땅이 척박하거나, 아니면 한동안 비가 오질 않거나 하면 역시 뿌리내리지 못하고 시절 인연이 다한다. 마약이나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올리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씨앗에게는 대단한 성취다.

지금의 나는 의도와 무관하게 다행히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긴 내렸다. 사실 뿌리내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한곳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다행히 이런저런 인연이 맞아서 뿌리내릴 조건이 주어진다.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래서 어른들이 한결같이 한 우물만 파라고 하는 것이다. 부평초 같은 인생이 고달픈 건 나이를 먹을수록 더하다. 어디가 되었건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젊었을 땐 넘치는 에너지를 몰 쏟듯 쏟아부으며 돌아다니는 게 제격이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만한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기실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의 나를 여기에 뿌리내리게 한 것은 나의 의의가 보다 솔한 우연들이다. 그 우연이란 것이 너무도 소소해서 지금은 물론 당시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부터, ‘왜 하필 그때 내게 그런 일이...’ 하며 생각날 적마다 속을 쓰리게 하는 것까지 실로 천차만별하고 다종다양하다. 세태보다 가벼운 온갖 우연들 속에 나는 어찌 하루도 별일 없이 잘 먹고 잘 잤다. 지금 내가 뿌리내린 곳의 토양이

얼마나 좋은지, 일조량은 충분한지, 내가 내린 뿌리는 튼실한지, 이파리를 쬐며는 별레들은 없는지 이것저것 따져보며 다른 나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온갖 상상들이 정마찰 공방이처럼 마음 속에 퍼져버린다. 아무 소용없는 생각 조각리들이다. 그러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달라진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다.

어찌어찌해서 나무로 성장하였다면 당연히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선은 충분히 후회해야 한다. 뭐가 되었건 후회하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못나서 그늘과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살아 있는 것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것이 인연이다. 제대로 살고 있다면 아무리 불품없는 나무라도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되고 바람막이가 될 것이다.

모든 인연은 우연으로 내게 와 인연이 된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솔한 인연들이 스쳐간다. 오늘도 신은 우연이라는 실재로 누군가의 삶을 적조하고 있다. 당신과 나는 ‘우연’이 만든 한 그루 나무이다.

기고

두려움을 이겨 내는 ‘광주 희망교실’



문경희 문흥중양초 교사

광주에는 아주 특별한 교실이 있다. 그 교실에 몸담아 아이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어느덧 7년째가 되었다. 그동안 4만 5000여 교실에 약 27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그 교실의 이름은 ‘광주 희망교실’이다.

‘광주 희망교실’은 학교에서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1학년 담임으로 희망교실을 통해 시우(가명)를 만나게 되었다. 시우는 유난히 얼굴이 하얗고 예쁜 여자이다. 수줍음이 많아 말을 할 때 소곤거리는 정도의 소리뿐이어서 예를 먹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두를 집중시키기도 한다. 시우의 어머니는 시우가 학교에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다. 시우 아빠가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었고, 지금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던 아이는 친구도 거의 없이 외롭게 지내는 때가 많았다.

3월이 되었지만 시우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입학을 앞두고 사둔 예쁜 가방을 메고, 아침이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힘차게 외치며 연습하던 아침 인사도 혼자만의 메아리가 되었다. 전화 상담으로 먼저 만나게 된 시우는 수줍은 아이였다. 그래도 수줍은 인사와 함께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오고 싶어 했다.

4월, 학교는 온라인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는 어색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공부하고 소통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지 않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학교가 되어 한글 공부도 숫자 공부도 그리고 봄과 학교에 관한 것도 배우기 시작했다. 5월, 드디어 친구들의 대면 학습을 위한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다. 시우도 친구들도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선 친구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도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었다.

시우는 한글 공부를 어려워했다. 학교에 입학해서 배워야 했던 한글 공부인데 3, 4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동영상으

로 배운 한글 공부는 혼자서 하기에 버거워 보였다. 시우뿐만 아니라 가정의 돌봄이 어려웠던 몇몇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재미있게 한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더욱이 부모님의 돌봄이 미치지 못해 학습에 결손이 생겨 버린 아이들도 있어 시급한 도움이 필요했다.

다른 학급에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학년 선생님들과 상의 후 희망교실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보충할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해 지도하기로 했다. 많은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지만, 하루에 10분이라도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한 걸음씩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알록달록 교재를 선물처럼 ‘내에게만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니 가정에서 학부모님도 너무 좋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조금만 협조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아이와의 학습을 시작했다.

시우는 한글 읽기를 어려워했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도 더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마스크 너머의 작은 눈이지만 푹푹물렁해 보이는 작은 눈이 더 반짝여지고 있다는 마음을 전해 주었

다. 시우를 위한 두 번째 선물은 그림책이었다. 등교 수업일 아침이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 친구들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었다.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그림책을 시우에게 선물해 준 것이다.

“시우야! 지금 아빠가 네 곁에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아빠도 엄마도 너를 많이 사랑하진단다. 알겠지?” 시우는 그림책 선물을 펼 듯이 기뻐했다. “이제 우리 시우 한글 공부하고 있으니 집에서 엄마께 이 그림책도 읽어 드려 보렴!”

2학기가 시작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예전처럼 함께 모여 하지 못한 보드 게임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이다. 비록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하지 못해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드 게임도 선물해 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시우를 직접 만날 수 없어 전화로 대화를 한다. 읽었던 그림책 이야기를 신이 나서 들려주는 시우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광주 희망교실은 용기와 힘이 되어 주고 있다.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한다면 희망은 있다.

社說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번에는 반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수사건 특별법)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순사건은 6·25 전쟁 당시 군경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지만 70년 넘게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인 제주 4·3사건이나 노근리사건 및 거창사건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년간 네 차례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2000년 16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다섯 개나 발의됐지만 끝내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전라선 고속철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전북 익산에서 여수까지 운영되고 있는 KTX 열차는 ‘무늬만 고속철’이다. 서울에서 출발해 여수까지 속히 세 시간 넘게 걸린다. 서울에서 두 시간 안팎이면 오가는 경부·호남선과 큰 차이가 난다. 기차길이어서 고속전철이 제 속력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에 반영하기 위해 나섰다. 여수·순천권 해양 관광객 등 연간 방문객이 지난 2017년 2797만 명에서 2019년 3484만 명으로 25% 가량 늘어나는 등 관광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속철 건설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광양만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전남도를 비롯해 동부권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5년에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힘을 쏟았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결국 다섯 번 만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더욱이 소병철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발의했지만 국회 과반인 152명이 법안에 찬성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란 점도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모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여수시의회는 마침 특별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힘을 보탬과 지역민들도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 지사는 합동위령제와 유적지 발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중요 사건 직권 조사와 동행명령권 발부 권한은 물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위령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담겨 있다.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은 만큼 이번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억울하게 숨진 이들의 70년 한을 풀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엔 재차 지역 역량을 결집해 내년 초 결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 건설은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다. 전라선은 지난 2011년 고속전철화됐음에도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19년째 불이익과 소외를 겪고 있다.

정부는 동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 여건을 크게 개선할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국가 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정책 우선순위를 뒤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익산-여수 간 고속철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다. 정부가 이번엔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천의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無等鼓

제비뽑기는 고대부터 선택이나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쓰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애초 제비뽑기는 그 결과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물이나 희생자를 결정할 때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점차 선호하는 일이나 꺼려하는 일의 대상을 가릴 때 활용하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 발전했다.

매년 4월 태국에서 열리는 군 장병 입대 여부 결정을 위한 제비뽑기는 현대 들어서도 눈길을 끄는 행사다. 태국은 해마다 군 장병을 모집하는

제비뽑기

데 애초 정해 놓은 장병 수에 미달할 경우, 만 21세가 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실시한다. 빨간색 공을 뽑으면 입대, 검은색 공을 뽑으면 면제다. 추첨 과정에서 빨간 공이 떨어지면 모집 정원을 모두 채운 만큼 곧바로 제비뽑기가 끝난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4월 9일, 인기 그룹 ‘갯세븐’의 태국인 멤버 ‘뱌뱌’의 입영 추첨 현장 생중계에는 전 세계 K팝 팬들의 시선이 쏠렸다. 이날 유튜브 ‘타이타비 뉴스’ 계정으로 생중계된 뱌뱌의 추첨 현장을 보기 위해 무려 1만 명이 넘는

팬들이 접속한 것이다. ‘뱌뱌’는 추첨 순서가 되기 전에 모집 정원이 충족돼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바로 면제를 받았다.

제비뽑기로 통치자나 정치인을 선별한 예도 있다.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제6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노리’는 제비뽑기 쇼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는 제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3남으로, 적자가 후사 없이 요절하는 바람에 남은 계승권자들의 제비뽑기를 통해 쇼군이 됐기 때문이다.

고대도시국가아테네에서는 제비뽑기로 공직자를 뽑았기 때문에 가문이나 능력에 상관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만 관리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했다. 장군이나 돈을 관리하는 주요 공직자는 투표로 뽑았다.

제비뽑기는 조건이 평등하다는 점에서 좋은 분쟁 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추미에 법무부장관 아들의 통영병 탈락의 경우처럼, 대상자 측이 스스로 평등한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뽑기 자체를 불평등하게 여기거나 반발할 수도 있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